

사람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7

120호

발행인 이용순 | 발행일 2017년 3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비교 분석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5점 만점에 3.96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3.8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개발역량 중 '직업이해', '진로탐색' 수준이 미참여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은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3.78점)이 그렇지 않은 중학생(3.56점)보다 높음.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을 높이고,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이를 설계할 수 있는 교과 수업 및 자유학기제 활동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그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전국 중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함.

- 자유학기제는 2013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15년까지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음.
 - 자유학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통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시험에 만 치중되어 꿈과 재능을 잃어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을 세우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 자유학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지필 평가를 보지 않아 학력 저하가 나타날 것이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함.
- 이 글에서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들이 진로개발역량 수준, 희망 직업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 자율적 학습 동기, 학교 관련 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5년, 2016년 자료

- 분석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5년, 2016년 자료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진로교육법」 제6조 및 「통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성과 및 교육수요자 인식 등을 매년 조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혁·공유·소통·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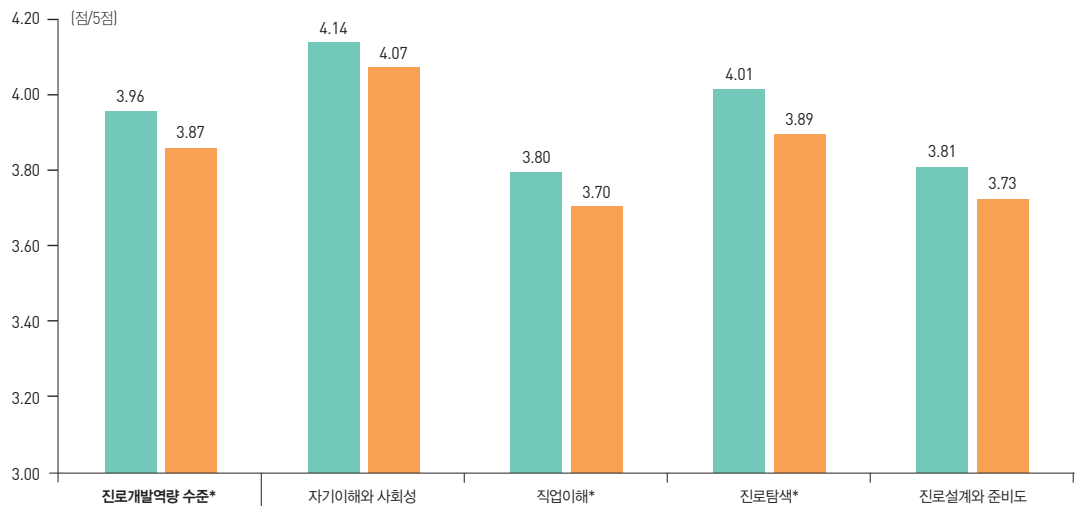


- 분석 대상: 2015년과 2016년의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모두 참여한 중학교 55개교의 연도별 중학교 3학년 학생 2,857명
 - 2015년 : 55개 중학교 3학년생 1,484명
 - 2016년 : 55개 중학교 3학년생 1,373명
- 분석 방법: t 검정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희망 직업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도, 자율적 학습 동기, 학교 관련 만족도 비교
 - 진로개발역량 수준: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토대로 구성된 4개 하위 영역, 20개 하위 문항들로 구성
 - 희망 직업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도: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 내용의 인지 정도에 대한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상의 응답값 평균
 - 자율적 학습 동기: '나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의 두 개 문항에 대한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상의 응답값 평균
 - 학교 관련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러 가지 학교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상의 응답값 평균

02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비교

|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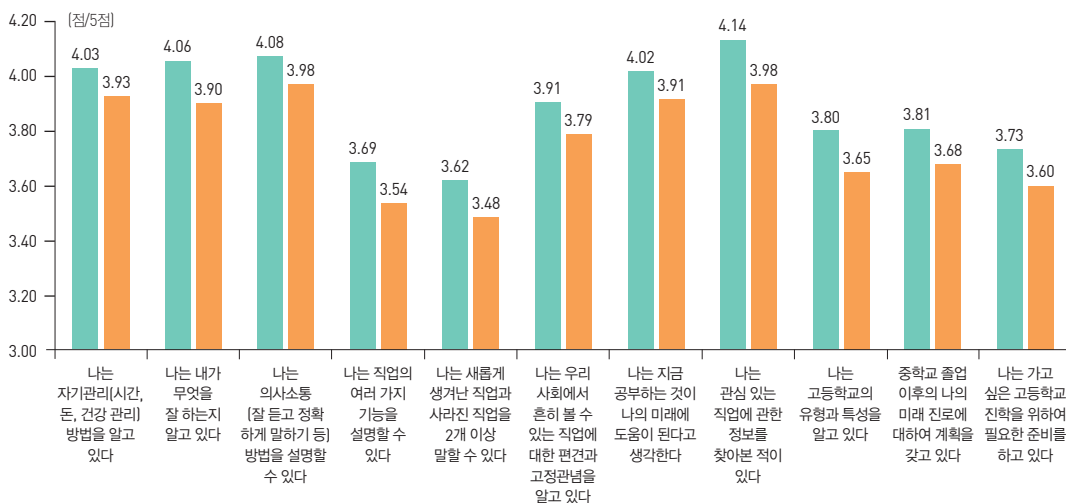
-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96점으로, 자유학기제 미참여 학생 (3.8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특히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영역 중 직업이해(+0.10점), 진로탐색(+0.12점)에서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자유학기제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비교

주 |
*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의 평균 응답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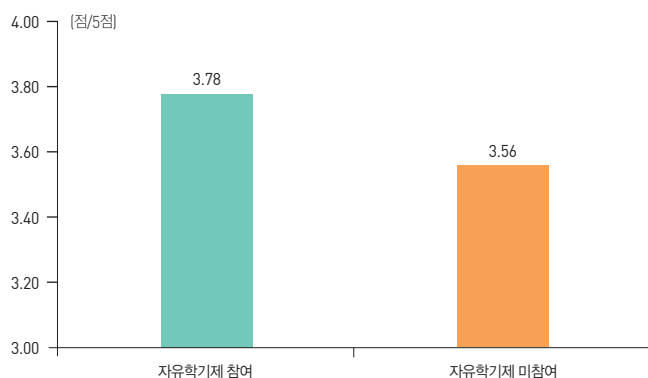
-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20개 세부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응답값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교육 기회의 탐색 및 직업정보 탐색과 관련된 역량 함양에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암시함.



[그림 2] 진로개발역량 수준 문항별 자유학기제 참여 및 미참여 집단 비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희망 직업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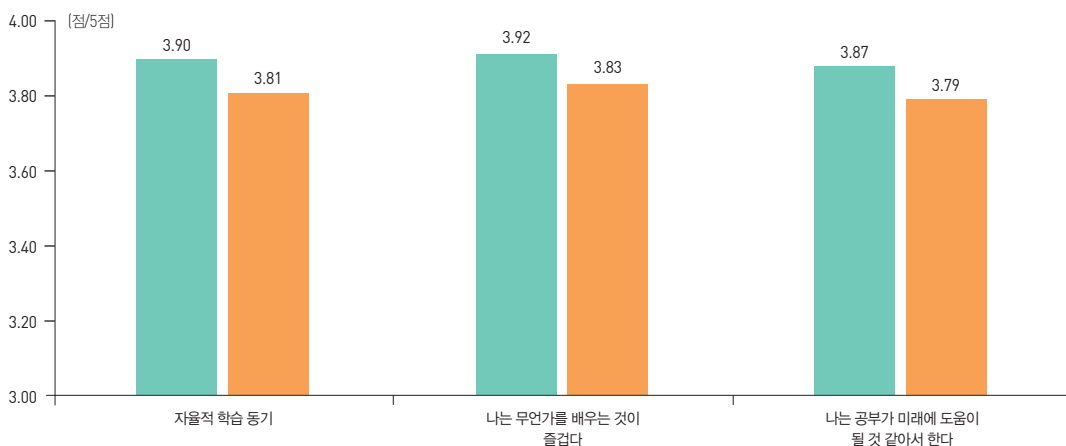
- 희망 직업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에서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 (3.78점)이 참여하지 않은 중학생(3.56 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0.22점).
 -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에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전에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자유학기제 참여 여부에 따른 희망 직업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 비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자율적 학습 동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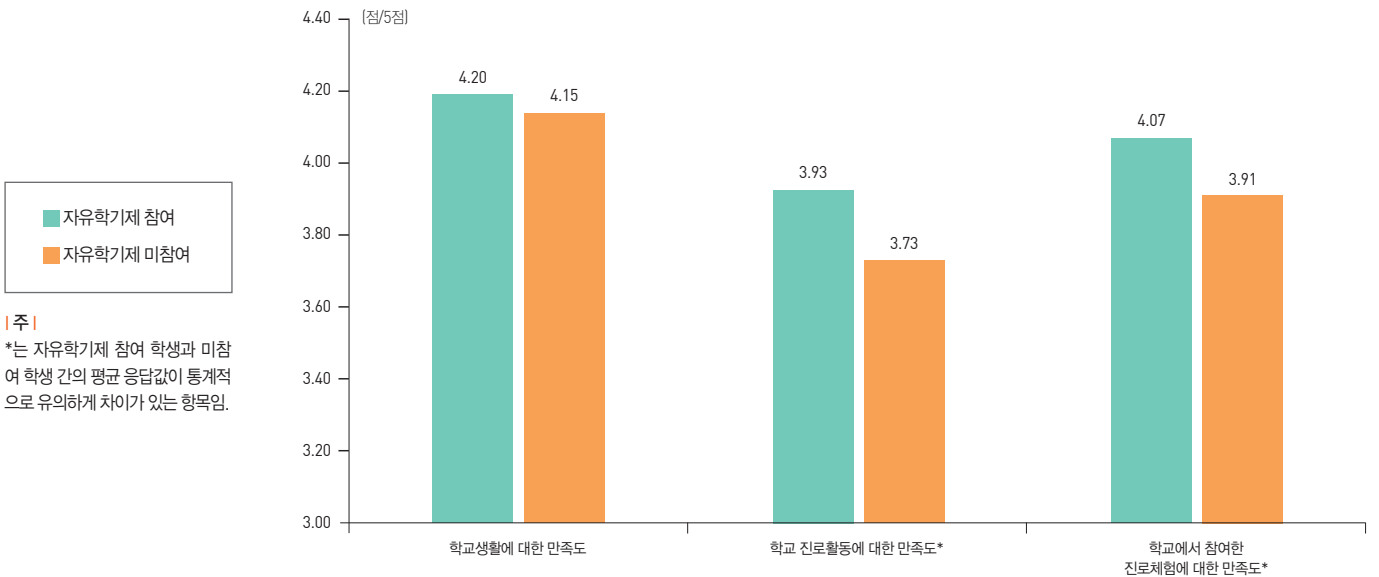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동기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자유학기제 참여 여부에 따른 자율적 학습 동기 비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3.93점)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3.73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0.20점).
- 학교에서 참여한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4.07점)이 참여하지 않은 중학생(3.91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0.16점).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활동 등의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 자유학기제 참여 여부에 따른 학교 관련 만족도 비교

주 | *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의 평균 응답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항목임.

03 시사점

-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중학생은 희망하는 직업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 및 학교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을 높이고,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이를 설계함은 물론, 자율적 학습 동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 수업 및 자유학기제 활동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또, 그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자유학기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고, 의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와 학업성취 수준, 미래 핵심 역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증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토론·실습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수행평가 중심의 과정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유학기제의 운영 성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김영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